

2025세계양궁대회 유치전 광주, 마드리드 넘어라

유치 경쟁 2파전...광주시, 시민 열망·인프라·국제대회 경험 등 홍보 세계양궁연맹 다음달 현지 실사...12월 집행위 평가 거쳐 개최지 결정

‘양궁메카’ 광주시가 오는 11월로 예정된 세계양궁연맹(WA)의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현지 실사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유치전에서 유럽의 강호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하게 됨에 따라 광주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다양한 메이저 국제경기대회 개최 경험 등을 집중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21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세계양궁연맹(WA)은 대회 유치를 신청한 광주시와 마드리드 등 2개 도시를 대상으로 다음 달 현지 실사를 할 예정이다.

세계양궁연맹은 대회 준비 프레젠테이션(PT), 현장 방문 등 실사와 1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 평가를 거쳐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현지 실사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하고 국제적 규격과 뛰어난 시설을 갖춘 경기장을 보유한 점을 집중 부각하고, 양궁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 숙박·문화 시설 등 탄탄한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시는 또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 등도 적극적으로 알린다.

경쟁 도시 마드리드는 200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19년 유스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전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가 가진 국제대회 노하우, 인적·물적 인프라 등 강점을 알리고 대회 개최에 대한 시민 열망에 힘입어 반드시 대회를 유치하도록 준비하겠다”면서 “특히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리스트를 6명이나 배출한 세계적인 인적 인프라 등을 집중 부각한다면,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지난 8월 19일 이용섭 시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지난 9월 24일에는 세계양궁연맹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해 광주시 남구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열린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연합뉴스

주말 전남 잇단 스피드 대항연

23~24일 영암서 질주 본능 ‘전남 GT’

국내 최대 모터스포츠 축제 이틀간 무관중 온라인 중계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2021 전남GT 대회’가 23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GT는 자동차 경주를 위해 제작된 달걀(지붕)이 없는 레이싱 전용차량과 달리 일반인 판매를 위해 개발한 고성능 자동차다. ‘전남GT 대회’는 국내 모터스포츠를 총괄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도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자동차, 모터사이클, 드래그레이스, 오프로드 등 7개 종목, 250여 대가 참여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피드 축제로 매년 11월 전세계 40만 명이 찾는 ‘마카오 그랑프리’를 본보기 삼은 ‘전남GT’는 모터스포츠와 자동차 복합문화를 기반으로 전남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있다.

‘전남GT’는 대회별 대표 클래스가 동시에 개최

되며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 ‘슈퍼6000’부터 영국 레이싱 전용차량인 ‘레디컬’, 1000cc 모터사이클 종목인 ‘슈퍼바이크’까지 국내 모터스포츠의 정상급 경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종목별로 ‘전남내구’는 차종 구분없이 마력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해 프로, 아마추어가 함께 주행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먼 거리를 주행하느냐에 따라 승부를 가리는 종목으로, 지난해 보다 30분 늘려 총 90분 동안 치러진다.

‘슈퍼6000’은 6200cc, 436마력의 스톡카가 참여하며, 32바퀴를 가장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우승한다. ‘레디컬’은 1340cc의 레이싱 전용차량이 시속 200km를 넘는 속도로 15바퀴를 주행한다. 특별 이벤트인 ‘슈퍼카 타임트라이얼’에 페라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BMW 등 400~500마력의 무제한 차량이 참가하며, 30분 동안 1바퀴를 빠르게 주행한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1000cc급 200마력 모터사이클이 참가하는 ‘슈퍼바이크’는 코리아 로드레이싱 챔피언십(KRRC), 코리아 슈퍼바이크(KSBK) 2개 대

회가 통합전으로 열린다. 400m 단거리를 빠르게 주행하는 ‘드래그레이스’와, 비포장 서킷에서 열리는 ‘오프로드’ 클래스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국제자동차경주장을 3구역으로 구분하고 상설트랙에서 자동차, 모터사이클, F1트랙 결승선 부근의 드래그레이스, 제2트랙에 자동차 오프로드가 열리며, 23일은 연습주행 및 예선, 24일은 각 종목 결승전이 펼쳐진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 선수와 관계자 등 최소 인원으로 출입통제하고 PCR검사서 의무제출,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비대면 브리핑, 식사시간 이원화, 경주장 내 거리두기 등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난 7월부터 이어져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는 힘든 시기에 ‘전남GT’가 잠시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중계방송을 함께하는 시청자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2~25일 여수서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전남·부산·경남도 공동 개최 세계 11개국 34척 기량 겨뤄

세계 11개국 34척의 요트가 바다를 가르며 힘찬 경연을 펼칠 제2회 ‘2021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가 22일 여수에서 개막한다.

전남도와 부산시, 경남도가 공동 개최하는 남해안컵국제요트대회는 4일간 여수 웅천 원형마리나를 시작으로 경남 통영 도남항을 거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까지 거침없이 물살을 가른다.

제1구간은 여수 웅천마리나에서 오전 6시 출

발해 통영 도남항까지, 제2구간은 통영 도남항에서 부산 수영만까지로, 남해안 바다를 누비는 세계 요트인의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펼쳐진다.

우리나라와 미국, 러시아 등 11개 나라에서 총 34척, 291명의 선수가 기량을 겨루며, 경기구역 안전관리는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센터, 여수해양경찰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도선사협회 여수지회 등의 협조로 이뤄진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방역관리에 중점을 뒀 참가 등록시 PCR검사 음성확인 증명과 백신접종 증명서를 제출받고 외국인 선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부터 구성해 무관중으로 진행

한다.

대회 기간 세계 저명 스포츠채널, 유튜브, SNS 홍보 등을 통해 해상에서 진행되는 박진감 넘치는 요트경기를 간접적으로 관람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21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상징”이라며 “남해안의 그림 같은 비경과 매력적인 해양관광도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대표 대중화와 요트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년 1월 프로탁구 리그 출범

구기 종목 6번째...탁구협회, 두나무와 타이틀스폰서십 계약 체결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노보텔엠베서더 강남에서 열린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십 계약 체결식’에서 대한탁구협회와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2년 프로탁구리그는 1월 말 시작해 6월 초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 탁구가 내년부터 프로리그를 출범한다.

대한탁구협회는 21일 서울 노보텔엠베서더 강남에서 블록체인 업체 두나무와 ‘한국프로탁구리그 타이틀스폰서십 계약 체결식’을 했다.

2022년 프로탁구리그 출범을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올림픽 종목 중 한국에서 프로를 출범한 구기 종목은 탁구가 6번째다. 현재 골프와 야구, 축구, 농구, 배구가 프로 리그·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원년인 2022시즌 프로탁구는 1월 말 시작해 6월 초까지 진행된다.

상무를 포함해 한국 탁구의 근간인 27개 실업팀이 프로리그에 참가한다.

이 중 기업팀은 1부 리그 격인 코리아리그에서, 지방자치단체 팀은 2부 리그 격인 내셔널리그에서 경쟁한다.

코리아리그는 남자 7개, 여자 5개 팀으로, 내셔

널리그는 남자 6개, 여자 9개 팀으로 각각 운영된다. 정규리그는 폴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팀 수가 많은 여자 내셔널리그만 2라운드까지 치르고, 나머지 3개 리그는 3라운드를 소화한다. 4개 리그에서 치러지는 경기 수는 총 210경기다.

챔피언은 포스트시즌에 플레이오프와 챔피언결정전을 치러 가린다.

정규리그 2~3위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서며, 여기서 승리한 팀이 정규리그 1위 팀과 챔피언결정전에서 맞붙는 구조다.

당분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아닌, 한곳에 모여 경기를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022시즌에는 경기 광고씨름체육관을 중심으로 리그를 치르고 가능하면 ‘지방 투어’를 해 일부 라운드를 개최할 계획이다.

타이틀스폰서인 두나무는 1년에 10억원씩, 2년간 총 20억원을 후원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 2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 3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 4관 둔, 보이스
- 5관 둔
- 6관 둔
- 9관 배움 2: 렛 데이 비 카니지
- 7관 씨네커피룸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보이스, 흥과 주근깨 공주, 기적
- 8관 씨네커피룸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 007 더 타임 투 다이, 동백



GAC 11시 음악산책 7 박은식의 피아노의 숲
일시 : 2021.10. 27.(수)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2



GAC기획공연 포시즌 실내악 시리즈_현악 4중주
일시 : 2021. 10. 30.(토) ~ 11. 06.(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 062-613-8235

